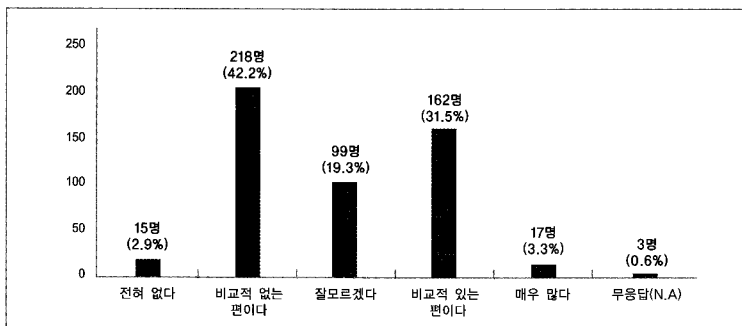


국내 편집교정 인력활용 및 인식조사

편집교정교육 63%가 “필요” 답변

출판사 및 인쇄사들이 편집교정실수로 인해 인쇄물의 품질저하를 경험한 사람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20%에 가까운 사람들이 경제적 손실경험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인쇄문화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발간한 ‘편집교정사 자격제도 시행에 관한 연구’(책임연구원 금창연 출판문화학회 회장·동원대학 광고편집과 교수, 공동연구원 오성상 신구대학 교수 박몽구 순천향대학교 교수 문연주 아주대학교 연구원, 보조연구원 공주영 글썬 실장)에 따르면 편집 교정 실수로 인한 출판물 품질 저하 경험이 “전혀 없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단 2.9%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비교적 없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42.4%(218명), “비교적 있는 편이다”라고 답한 비중은 31.5%(162명), “매우 많다”고 답한 비중은 3.3%(17명)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19.3%를 제외하더라도, 대략 80%에 가까운 응답자가 편집 교정 실수로 인한 품질 저하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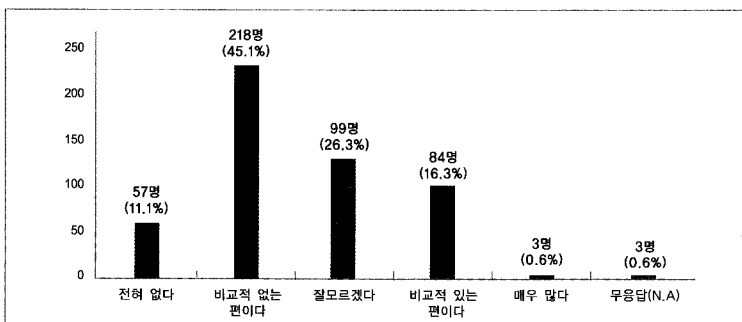


〈편집 교정 실수로 인한 출판물 품질 저하 경험 유무〉

편집 교정 실수로 출판물 품질 저하 경험 “57.5%”

편집 교정 실수로 인한 출판물 품질 저하는 단순히 1회적인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출판물을 발행하는 발행처의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히고 그 영향이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미 지 손상은 결국 출판물에 대한 신뢰의 손상 및 판매 부진으로 이어질 개연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았을 때,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교정 실수로 출판물의(인쇄물)의 품질이 떨어진 적이 있으십니까?”라는 설문에서 “비교적 있는 편이다”의 비중이 거의 반에 가까운 46.0%로 타 업종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많다”의 비중도 타 업종에 비하면 월등하게 높은 11.5%를 차지했다. 이 두 응답을 합치면 57.5%로 편집 교정 실수로 인해 출판물의 품질이 떨어졌던 경험이 타 업종에 비해 매우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편집 교정 실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 경험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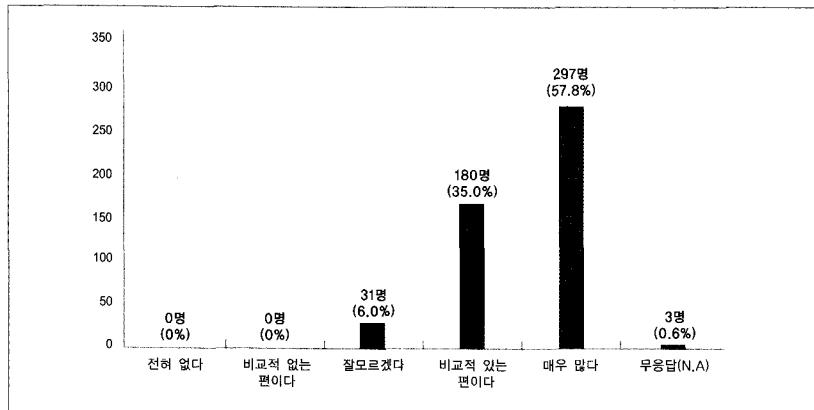
편집 교정 실수로 인한 재정적 손실 경험 사례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중이 26.3%나 되어 실제 현장에서 편집 교정 실수가 출판물의 제작 품질 및 재정적 손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어려웠다. 다만, 경제적 손실이 “전혀 없다”와 “비교적 없는 편이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57명(11.1%), 232명(45.1%)으로 약 반 수에 가까운 응답자가 편집 교정 실수가 재정적 손실의 직접적·결정적 원인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경제적 손실이 “전혀 없다”고 답한 비중은 단 11.1%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은 비록 그 경제적 손실의 횟수나 크기에 많고 적음 또는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많은 이들이 경제적 손실의 경험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실제로 인쇄사들이 겪어본 사례다.

- 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E인쇄사의 경우, 지난 2009년 10월, ‘인쇄물 뒷문음’ 사고가 발생하였다. 데이터에 이상이 없고 교정 인쇄도 이상이 없어 인쇄를 진행하였으나 인쇄물의 무게로 인쇄용지 뒷면에 잉크 등이 묻어나는 일명 요고레 현상으로 4x6배판 도서 1만 부를 재인쇄하여야 했다. 그 결과 5백만 원의 손실을 감수하고 인쇄물을 폐지로 폐기해야 했다.
-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J사의 경우, 지난 2006년 11월, ‘핀트 불일치’ 실수가 발생하였다. 작은 사이즈의 가전제품 설명서를 컬러로 인쇄하면서 핀트 맞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납품을 거부당함. 10만 부를 재인쇄해야 했는데, 그 결과 2,5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서체 하나를 놓치거나, 텍스트 입력 등에서 부주의로 발생하는 순간의 편집 교정 실수는 상상 이상의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기도 한다.



〈편집 교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편집 교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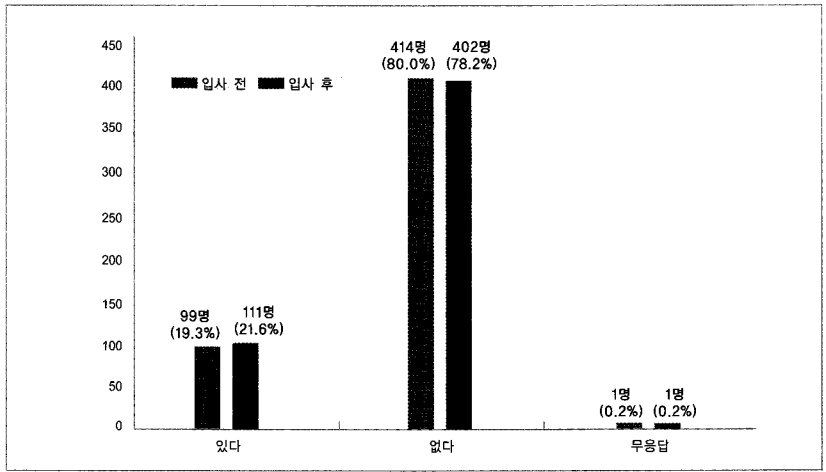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출판 및 인쇄 과정에서 편집 교정의 중요성에 대해 “대체로 중요하다”(35.0%)와 “매우 중요하다”(57.8%)를 합친 비중이 무려 92.8%를 차지했으며, “전혀 중요하지 않다”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처럼 출판 인쇄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대부분 편집 교정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ip

조사대상은 출판 인쇄 산업 현장에서 편집 교정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출판 인쇄 산업 현장이라 함은 신문사, 출판사, 잡지사, 인쇄사, 광고회사 및 편집대행사를 말한다.

신문사의 경우, 국내의 대표적 일간지(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국민일보, 세계일보)의 협력을 얻어 교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출판사의 경우, 출판 장르별로 치우침이 없도록 배려하여 교과서 출판, 아동 출판, 교양 및 인문 출판, 전문 출판의 출판사를 고루 선정하도록 했다.

한편 인쇄사의 경우는 사내에 디자인실을 가지고 있어 단순 인쇄 업무뿐만 아니라 편집 교정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광고회사와 편집대행사의 경우 역시 일상적인 업무 속에서 편집 교정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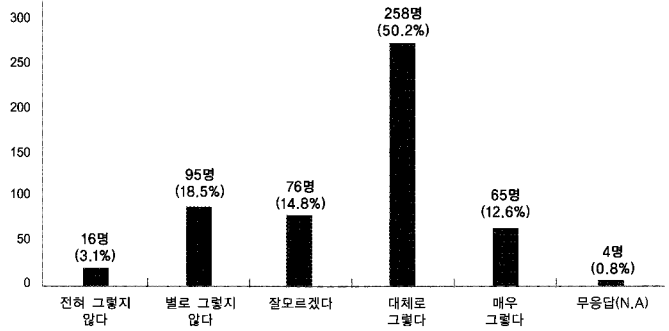
〈입사 전 · 후의 편집 교정 교육 경험〉

편집 교정 관련 교육 경험 없다 “80%” 육박

편집 교정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사 대상자의 입사 전과 입사 후 양쪽 모두 교육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보다 “경험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았다.

입사 전에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는 99명(19.3%), 경험이 “없다”고 답한 이는 414명(80.0%)이었으며, 입사 후에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는 111명(21.6%), 경험이 “없다”고 답한 이는 402명(78.2%)이었다.

이처럼 “있다”와 “없다”의 비중은 대략 1대 4정도로, 현재 편집 교정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에게 많은 수가 편집 교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한 실정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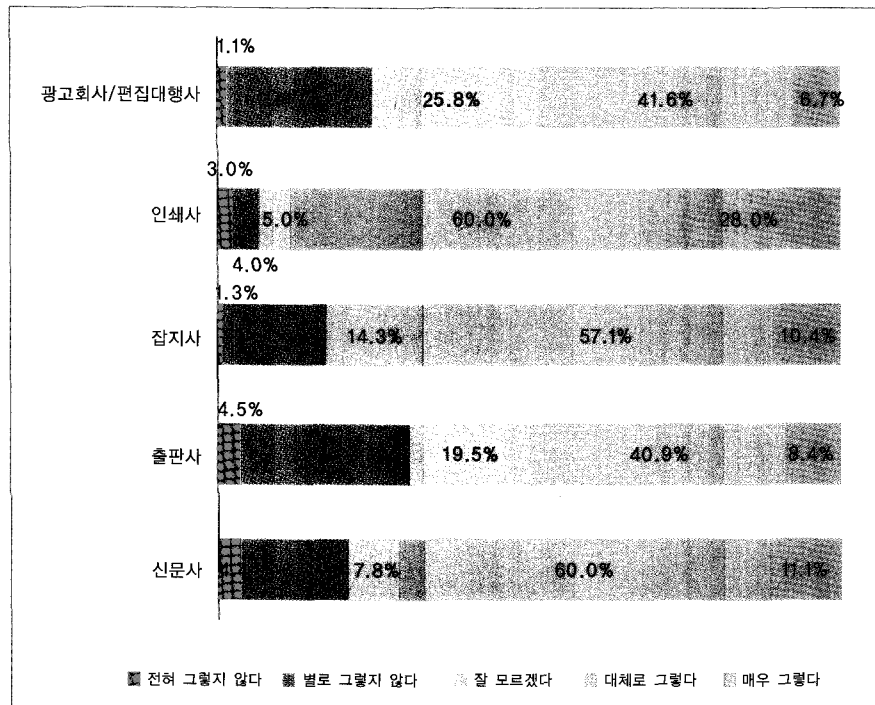


〈편집 교정 교육에 대한 니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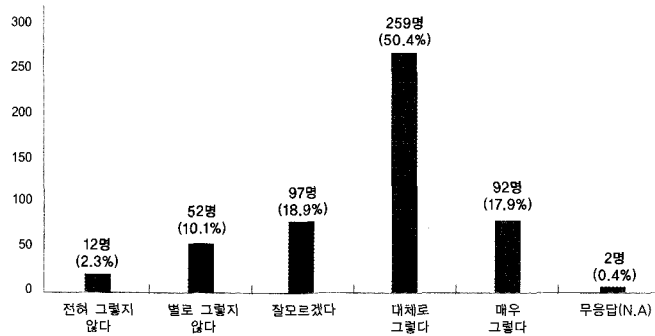
편집 교정 교육, 꼭 필요한 곳은 인쇄사

출판 인쇄 과정에서 편집 교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은 반면, 교정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하는 현실 속에, 만약 “편집 교정 전문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다면, 소정의 교육을 받고 싶습니까?”라는 질문에서 62.8%가 편집교정교육에 대한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조사 결과에서 “대체로 그렇다”(258명, 50.2%)와 “매우 그렇다”(65명, 12.6%)라고 응답한 비중이 62.8%로 나타났다.

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편집 교정 교육에 대한 니즈가 가장 높게 나타난 업종은 인쇄사였다(“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88.0%). 그 뒤를 이어 편집 교정 교육에 대한 니즈가 높은 것은 신문사(71.1%) →잡지사(67.5%) →출판사(49.3%) →광고사 · 편집대행사(48.3%)의 순으로 이어졌다.



〈업종별 편집 교정 교육에 대한 니즈〉



〈편집교정사 자격 제도의 출판물의 질적 향상에 대한 기대〉

편집교정사 자격 제도의 출판물의 질적 향상에 대한 기대

“편집교정사 자격 제도가 출판물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사 응답자가 대체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이제껏 국내에서 편집교정사 자격 제도와 같은 편집 교정을 특화시킨 자격 제도가 실행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18.9%)이나 부정적 태도(“전혀 그렇지 않다”(2.3%) + “별로 그렇지 않다”(10.1%) = 12.4%)를 취한 응답자는 적은 편이었으며, 긍정적인 기대 즉 “대체로 그렇다”(50.4%)와 “매우 그렇다”(17.9%)라고 응답한 비중이 68.3%나 되었다. ☞